

백원국 2차관, “겨울철 공항관제현장, 안전에 빈틈 없어야”

- 30일 김포공항을 찾아 항공분야 안전관리상황 점검, 종사자 격려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30일(화) 오전 10시, 김포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, 부산지방항공청, 제주지방항공청, 항공교통본부 등 항공분야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안전점검회의는 최근 항공수요 완전회복과 설 연휴에 대비하여 공항과 하늘길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,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백 차관은 기관별 ‘안전관리계획’을 청취한 이후, “항공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바, 최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관제·공항의 안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- 또한, 불법드론 비행으로 공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지 체계를 보완하고, 공항 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다.
- 아울러, “공항 운영 특성상 직원들의 24시간 근무체계 유지로 인해 피로 누적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- 회의를 마친 백 차관은 김포공항 관제탑을 방문하여 “우리나라가 항공 운송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관제사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했다”면서, “곧 다가올 설 연휴기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2024. 1. 30.

국토교통부 대변인